

# 사회학적 관점에서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Art Education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주저자

이안근(Lee, An-keun), ani@wu.ac.kr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Professor of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투고일	2020.01.29	심사일	2020.04.24	게재확정일	2020.04.27
-----	------------	-----	------------	-------	------------

본 연구는 2019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임.

# 사회학적 관점에서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Art Education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 2.1. 교육의 사회학적 기능
  - 2.2. 미술의 사회학적 기능
3. 미술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 3.1. 미술교육의 정당성
  - 3.2. 사회학적 관점에서 미술교육과정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n this paper is analyzed the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from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art subject. Education policy has been changed to reflect social ideology or the background of the times. However, in recent years, Korean education has been pushed to the knowledge-based curriculum due to the narrow perception of art education. However, the competitiveness of the state today is not only achieved by knowledge-based education. In an environment of diverse internationalization, a curriculum for creative human resources with differentiated cultural identities is required. And The most effective subject in fostering creative talent is art. Art is a subject that can be developed by creative imagination and qualitative and reflective thinking, which can promote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Today's school art education involves more than just knowledge of art. Therefor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art curriculum that can cope with diverse social environment should be discussed and changed based on sociological discourse.

This study discusses the validity of recognition and paradigm shift in art education. The educational paradigm should be set the goal of education based on a thorough situational analysis of the times. Accordingly, this study is suggested that a review of the school art education curriculum and its contents is necessary.

**keyword**

Social Change and Art Education, the Value of Art Education, Re-recognition of Art Education, Ideology of Education

**논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교육정책은 사회적인 이념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며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미술교육에 대한 편협한 인식으로 인해 지식중심 교과에 밀려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단지 지식중심 교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변하는 국제화시대의 환경에서는 차별화된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창의적 인재육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과는 미술이다. 미술은 창의적인 상상력과 질서적·반성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감성적·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과이다. 오늘날의 학교 미술교육은 미술에 관한 지식 그 이상의 문제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다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교육 과정에 대해 사회학적인 담론에 근거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이 논의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에 대한 재인식과 패러다임 전환의 타당성을 논하였다. 교육적 패러다임은 시대에 대한 철저한 상황분석을 토대로 하여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미술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사회변화와 미술교육, 미술교육의 가치, 미술교육의 재인식, 교육의 이데올로기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우리나라는 근대 미술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나름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졌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채전', 고려의 '도화원', 조선의 '도화서'라는 미술 양성기관이 있었다.<sup>1)</sup> 또한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크게 3기로 나눈다. 제 1기는 1895년부터 1920년대 초까지의 기술·훈련주의 미술교육 기이며, 제 2기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45년 광복까지로 근대미술교육의 태동기, 제 3기는 광복과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육관에 따른 창조주의 미술교육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sup> 당시

우리나라는 광복 후 얼마 되지 않아 민족전쟁을 치르면서 사회는 체제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으며, 교육정책은 정치적 영향을 반영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교육사상의 기반에 두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교육사상을 가진 존 듀이(John Dewey)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을 받아들였다. 미술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정서를 계발한다는 목표로서 '표현이 강조된 미술교육'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며 '정서로서의 미술교육', '창의성 미술교육',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 ( 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 등이 강조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1995년 5월 제 1차 교육과정안 발표를 시발점으로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다.

국가는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교육을 필요로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교육의 대중화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추진되었다.<sup>3)</sup> 이것은 교육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교육목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교육이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도구적인 기능을 지니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이론은 국가나 사회는 구성된 사회의 정체성을 살리며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규범이나 언어, 감정, 사고, 태도,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등을 내면화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교육은 그 사회의 이념이나 정책을 반영하여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에 따른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또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은 사회가 제공하는 행동양식과 가치를 습득하도록 기능을 한다.

근대교육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와 시대적인 요구,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며 변화 되었으며, 미술교육 또한 '미술'과 '교육'이라는 두 영역이 변화되어 왔다.

근대교육 이후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술교육은 단지 정의적 영역의 교과로 인식되어 지식중심 교과에 밀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시수가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규과과로써 예술교과의 위상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미술교육의 교육적 목적과 가치가 사회적인 이데올로기(ideology)에 의해 그 역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예속된 정책으로 지식중심 교육에 편중된 교과과정을 입안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정서함양, 창의적 사고능력 개발을 도외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술교과는 인지적·정서적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교과이며 인성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의 교과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 지원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 교육에서도 기존의 'STEM'교육에 예술(Art)을 추가하여 융합교육에서 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각·영상정보가 넘쳐나고 디자인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는 미술교육에 대한 재인식과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미술교과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역할과 기능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교육사회학 이론에서 정의하는 교육의 사회학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미술에 대한 사회학적인 의미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미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정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시대적인 변동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이념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미술교육과정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미술교육학, 사회학에 관한 저서와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 2.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 2.1. 교육의 사회학적 기능

교육의 사회학적 이론에서는 교육의 개념을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기능이론은 콩트(Comte)나 스펜서(Spencer)에 의해 기초가 형성된 이론으로 뒤르켐(Durkheim), 파슨스(Parsons)등에 의해 정립되었다.<sup>4)</sup> 특히 뒤르켐은 교육사회학의 창시자로 간주되는데 그의 주장이 교육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능이론은 교육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와 질서를

존속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을 사회 구성원이 내면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기능이론은 교육 자체보다는 사회체제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사회질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일련의 규범이나 가치, 신념, 행동양식 등이 구성된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기능이론의 교육관은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 등을 전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이동이 가능하며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이론은 오랫동안 교육사회학의 지배적인 시각으로 주도되어 왔다.

한편 기능이론과 관점을 달리하는 갈등이론이 1980년대 들어서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갈등이론은 기능이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적인 이념이나 신념, 가치 등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교육이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갈등이론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이 어떻게 강화되고 유지되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갈등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은 투쟁과 경쟁, 갈등, 긴장, 대립, 억압, 통제, 재생산, 이데올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이론에서의 갈등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내재된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쟁과 억압, 통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갈등론에서 사회를 보는 관점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투쟁이나 경쟁 등이 지속되는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해 세력 다툼이나 이해가 상충되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또한 갈등론에서는 지배세력이 기존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면서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해 은폐된 가치나 신념에 봉사하도록 한다.<sup>5)</sup>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 학교교육이다. 따라서 학교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곳이라고 한다.

갈등이론을 발전시킨 알튀세르(L. Althusser)에 의하면 국가는 두 가지의 기구, 즉 억압적인 기구

와 이데올로기적 기구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구성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주입시켜 복종시킨다<sup>6)</sup>고 주장한다. 알튀세르가 제시한 억압적인 기구는 기존의 질서에 침해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국가의 권력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구속하며 억압함으로써 그 저항을 막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구인 이데올로기적 기구는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포장하여 전수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튀세르는 교육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교육이데올로기 기구는 억압적인 기구와는 달리 지식이나 가치, 태도 등을 학교나 언론, 문화, 예술 등과 같은 기구를 통하여 내면화시키며 전수시킨다. 다시 말하면 갈등론에서의 교육관은 학교가 객관적이 아닌 지배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전수하는 교육적 이데올로기 기구로써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심화시킨다는 관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는 지적 능력의 함양보다는 지배집단의 가치나 태도, 규범 등을 전수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의 갈등이론은 문화재생산이론으로 확장되어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데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부르디외(Bourdieu)이다. 그는 저서 『재생산(La Reproduction)』에서 ‘아비투스(habitus)’와 ‘상징적폭력(symbolic viole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학교가 교과내용을 통해 문화적 재생산의 역할을 다음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만든다<sup>7)</sup>고 주장하였다. 부르디외가 제시하는 아비투스는 계급과 개인의 의식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초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며 문화집단의 생활방식이나 지각 또는 이해를 구성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상징적 폭력이란 특정 계급의 문화가 우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사회적인 허구성에 의해 다른 문화를 규정하고 계급적 차이를 만들어 가는 권력으로 그 대표적인 기관이 학교라 한다.

이처럼 기능론이나 갈등론은 교육과정의 목적이거나 내용, 방법의 관점을 달리하지만, 결국 사회는 교육을 통하여 지속되기를 원하는 가치나 이념, 신념에 기초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적인 노

력을 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과 사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교육의 목표와 교과내용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이론의 논점이 다르다고 이해된다.

이렇게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구성이 논의되면서 '신교육사회학(New Sociology of Education)'이라 불리는 학문이 대두되었다. 1960년대부터 교육목표에 대한 담론으로 시작된 신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이나 문화적인 다원론, 공통의 커리큘럼 등 교육적인 담론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져왔다. 특히 신교육사회학에서는 학교에서의 교과내용이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조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학교교육의 커리큘럼에는 다음세대에게 전수할 내용을 선택하고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재고안하는 것을 전제로 재조직하고 재구성하는 '교육학적 전환(transposition didactique)'이 이루어진다.<sup>8)</sup>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과교육은 사회학적인 기능으로써 선택되고 운용되어진다.

## 2.2. 미술의 사회학적 기능

미술에 대한 기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동굴의 벽화나 바위에 형상을 새기며 그들의 바람을 소원하고 생명과 생활의 안전을 염원했던 원시 신앙생활의 형태로 나타났다.<sup>9)</sup>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문양에도 '행복', '장수', '다산', 등 수많은 의미를 지닌 문양이 작품이나 건축, 공예 등에 매우 많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것들의 수많은 예는 미술이 단지 미적체험에 의한 본연의 특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예술과 사회관계에 대한 연구영역의 기원은 인문 사회과학의 발전 이전으로 기원전 372년경 플라톤(Platon)이 그의 '이상국가'에서 예술에 관심을 나타내었던 시대까지 소급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플로티누스(Plotinus)는 예술의 위치를 짓는 형이상학적 이론을 제안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예술의 사회적 해석을 해왔으며, 현대적 효시는 1800년 프랑스 파리스타엘 부인(Madame de Staél)의 『사회제도와의 관련 하에서

본 문학에 대하여, (*De la Litterature considéré dans ses rapports avec les institutions sociales*)』의 출간으로 예술에 있어서 종교와 문학 양식에 대한 인종과 기후의 관계를 다루었다.<sup>10)</sup>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프랑스 비평가이며 철학자인 뎀느(Hippolyte Adolph Taine)의 『영문학사, (*Histoty of English Literature*)』에서 예술작품은 문학적 주위환경과 일반적인 정신상태의 집합에 의해 결정<sup>11)</sup> 된다고 전제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 예술을 설명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태도라고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예술에 관한 많은 저작을 남긴 사회학자 카블리스(Vytautas kavolis)는 사회학자들이 예술을 소홀히 하며 사회적인 배경과 협소하게 관련지우는 태도 때문에 예술분석이 장애를 받고 있다고 주장<sup>12)</sup>했다. 이것은 예술창작 본연의 숭고한 정신이 사회적인 여러 배경에 의해 퇴색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맥피(McFee, J. K)는 「사회, 미술, 교육 (*Society, Art, Education*)」이라는 논문에서 미술교육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작가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등 상호작용에 의한 의식을 반영하여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술에 대한 이해는 미술이 인간정신과 사회와 문화라는 상호적 관계 속에서 창작된다는 본질적·맥락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건축이나 고구려 고분 벽화 등 많은 유적과 유물의 작품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작품들이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근거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미술의 사회적인 기능은 다양하다. 미술작품이 때로는 상징적 메시지로써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주의적 역할 기능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미술은 특히 종교 영역에서 이미지를 통하여 정신적이고 시각적인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sup>13)</sup> 현대에 와서는 미술을 표현의 수단으로써 메

시지를 전하는 여러 유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계몽이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 등 의도하는 주제를 표현해 내는 민중미술도 하나의 예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미술'이란 인간 고유의 본능인 표현의 욕구를 작가가 자신의 사고와 신념을 표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산하는 도구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은 그 미적 기능에 의해서도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정신재(精神財)로서 예술 본연의 사회적 의의를 지닌 것이다.

### 3. 미술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 3.1. 미술교육의 정당성

아이스너(E. W. Eisner)는 미술교육의 정당성을 맥락주의와 본질주의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맥락주의적 정당화(contextualist justification)는 미술활동의 수단적인 결과를 강조하며, 미술활동의 목표 설정을 학생이나 사회의 특별한 요구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본질주의적 정당화(essentialist justification)는 미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과 이해에 대한 여러 공헌을 강조한 것으로 미술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기반으로 한다.<sup>14)</sup> 이것은 미술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당한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술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른 영역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의 경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미술의 독특성과 가치에 대해 랭거(Suzanne Langer)는 그의 예술상징론에서 개인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추론적인 양식과 비추론적인 양식으로 구분하였다.<sup>15)</sup> 추론적인 양식은 과학적·논리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이며 합리적이고 명제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를 통하여 앎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추론적인 양식은 논리적 직관이나 미술적인 형태의 지각 등에 의한 사고가 결합된 고유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앎을 실현하는 독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곧 예술의 영역이 여기에 해당한다.<sup>16)</sup>

이처럼 독특한 가치를 지닌 예술의 본질적인 기여는 다른 교과로 대체될 수 없다. 미술의 본질적인 시각화 작업은 감각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는 사상이나 감정 등에 의한 질서적·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상징이나 은유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미술의 본질적인 가치와 독특성에 따른 미술 자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 미적감상 외에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전인적 교육 교과이다. 다시 말해서 미술은 심미적 체험에 의한 정서활동이다. 특히 유아미술은 유아들의 신체적·창의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교과이다. 더 나아가 미술교육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은 미술교과를 단순히 정의적 교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미술활동의 과정을 인지적 관점으로 연구한 듀이(J. Dewey), 랭거(S. Langer), 아이스너(E. Eisner), 굿맨(Nelson Goodman), 아른하임(R. Arnheim) 등이 제시한 논의에 의하면, 미술창작의 표현활동 전체의 과정은 인지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에 의한 지각활동<sup>17)</sup>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다. 즉 미술활동은 창작과정의 첫 관문인 시지각 활동에서부터 단계적인 사고활동의 관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술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미술교육에 대한 정당성과 중요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의 특성을 학교교육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다. 그는 1700년대 전통적 사고를 벗어난 만인의 보편적 활동으로서의 미술을 주장하였으며 맥락주의적 시각에서 미술의 유용성과 실용적인 가치를 피력하며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8)</sup> 프랭클린은 미술교육의 목적을 미적활동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것을 교육시키는 수단을 더 강조하였다. 사실 당시는 미술에 대한 실용성과 유용성의 개념이 지배적이었으며 학교를 수단적인 측면으로 보았던 시기였다.

정리해보면, 미술교육에 대한 정당성과 가치를 논하는 것은 크게 미술의 본질적인 가치와 도구적인 가치의 관점으로 구분된다. 본질적인 가치는 미

술교육을 통하여 미술 그 자체로서 개인의 심미적 체험에 의한 경험과 창의성 등 전인적 교육으로서 가치를 두는 것이다. 도구적 가치로서의 미술교육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이해와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적 능력을 함양하는 가치이다.

### 3.2. 사회학적 관점에서 미술교육과정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이념과 체계를 갖추고 수행되어 왔다. 조선시대 미술교육은 세 가지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유교에 입각한 정치적 이념과 도덕적 규범의 보급을 위해 미술이 중요한 계몽의 수단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공리적 가치관이다. 둘째는 그림이나 도자기를 제작하는 것을 단순한 기예(技藝)로 간주하는 잡기·말예(雜技·末藝)사상이다. 셋째는 그림이 덕성과 심성함양에 유효하고 인간 본성인 인의 예지(仁義禮智)를 회복한다는 것에 유효하다는 수기적(修己的)가치관이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미술교육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명맥을 잇지 못했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서양미술교육 이론을 받아들인 일본의 교육과정이 우리 교육현장에 검토 없이 유입되었고, 광복 후에는 미국의 신교육체제의 새로운 미술양식 사조가 미술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외국 선교사를 통한 미술교육과 이론들이 수용되면서 미술문화는 급격히 변화되고 작가 양성 위주의 도제교육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미술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교육은 국가의 정책이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일제 강점기 동안 미술교육은 사실적 묘사

나 임화(臨畵), 수공이나 공작과 같은 기술주의 미술교육과 감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1차 교육과정 이전 1945-1946년에는 우리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동안의 교과를 단지 우리말로 옮기는 정도였으며, 심지어는 제대로 된 교과서도 만들지 못해 강점기 시절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던 시기이다. 다음 1946-1954년은 미 군정시기에 구성된 교수요목(敎授要目)제정위원회에서 만든 임시방편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교육과정의 과도기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교육과정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사상이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에서는 제정된 교육법(1949)에 따라 최초로 우리가 만든 국가수준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사회적으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전쟁으로 인한 혼란한 사회질서 복구가 요청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미술교과의 교육목표는 생활중심 교육이념이 중심이었다. 미술교육 과정에서는 산업과 상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유형을 개발시키는 직업적인 목표에도 관심을 두었다.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은 정부수립(1963)과 '경제개발 5개년 추진', 새마을 운동 등의 경제개발 시기로 재건과 부흥을 위한 프래그머티즘의 이념을 채택하였다.<sup>20)</sup>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경제발전의 중요성과 자주성, 생산성 등이 강조되었다. 미술교육에서는 프래그머티즘의 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실용주의 미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생활용품이나 도구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미술교육이 반공이라는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와 경제성장에 이용되어<sup>21)</sup> 국가정책을 반영한 '반공포스터 그리기' 등 반공에 관련된 내용의 수업이 많았다.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은 경제개발과 급속한 산업의 발달, 10월 유신, 10.26 사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등 많은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이 정치에 가장 많이 이용당했던 시기이기도 하

다.<sup>22)</sup>경제발전에 주력한 국가정책에 따라 미술교육은 사회재건의 수단으로써 당시 정치와 사회적 담론을 반영한 교육목표를 정했다. 그런데 2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프래그머티즘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과정에 충분한 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학문 간 내재해 있는 지식 연구과정의 체계적인 조직으로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이론적 배경으로 학문중심의 교육 방법을 강조하게 되었다. 미술교육 또한 학문중심 교육과정, 즉 인지적 교육과정으로 체계화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의성 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통미술 감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산업화에 따른 디자인과 공예의 중요성을 부각한 점인데, 이는 서구 근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미술교육의 변화를 답습한 것으로 서구 자본주의가 한국사회에 스며들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의 시기는 제 5공화국인 군사정권의 출범과 1980년 교육개혁조치, 86아시아 게임 등 정치, 사회,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며 지나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남에 따라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었다. 미술교육에서도 미술을 통한 인격향상과 미술의 조형성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중심의 미술활동으로 암기식의 미술사와 작가, 그리고 서양 미술사조와 양식들에 치우친 형식적인 수업이 이루어졌다.<sup>24)</sup>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미술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교육과정 정립을 시도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에는 서울올림픽,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실시 등이 있었다. 교육이념으로는 인간중심에 이어 인간존중의 교육풍토를 조성하며 전인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로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술교육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전통미술에 대한 지식이 배타적으로 강조된 시기였다.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며 전통미술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동양화'를 '한국화'로 용어를 바꾸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제6차 교육과정(1993-1997)은 민주화, 국제화를 위한 급속한 변화의 시기였으며,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고 정치적인 전환기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미술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미술교육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 계발과 정서함양을 목표로 하였으며, 미술품에 대한 가치와 다양한 미술문화를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6차 교육개정에서부터 중학교 미술교과의 시수가 줄어들면서 미술교육의 위상은 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기였다.<sup>25)</sup> 이것은 미술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의 이론과 실제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1998~2007)에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남북 공동 선언 등이 있었다. 교육목표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의 질을 강화한다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미술교과가 선택 교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미술과 수업시수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술교육에서는 미적체험이 강조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미적경험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에 의한 감상영역과 표현영역이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이것은 학습량의 최적화와 학습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해 미적 안목과 미술문화를 기르려 이해중심 미술교육인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의 도입에 의한 것이다. DBAE는 미술의 네 영역인 미술사(art history),미학(aesthetics),미술비평(art criticism), 미술 제작(art production)을 통합하는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07년, 2009년 교육과정이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교과군을 도입한 것이다. 즉 음악과 미술을 하나의 교과군으로 설정하여 교과군 내에서 수업의 시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년군을 설정하여 예를 들면 미술교과 초등 3.4학년 교육과정을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학교장의 선택 재량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교과별로 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sup>26)</sup> 함으로써 결국 예체능의 시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적 역량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융합적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과 내·교과 간 내용을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미술교과에서는 미적 감수성이나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반영한 교수 학습이 계획되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술교육과정에 대한 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교육과정은 시대와 정치적 이념에 따라 국가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수용하여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이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하위 구조에서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사회적인 이념과 가치를 근거로 형성된 정체성을 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자율성 등 교육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교육의 기능론적 관점도 내재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발전보다는 사회의 이익에 우선하여 교육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갈등론적 구조도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써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술교육도 사회적으로 아비투스(Habitus)화된 학교 미술교육의 제도가 드러나며 문화재생산 역할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아비투스의 성향은 결과적으로 미술교육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낮게 간주하고 사회이념의 통제 속에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어 미술교과의 위상을 낮추게 되었다. 즉 교육과정에는 순기능으로써의 기능론적인 구조와 사회적 이념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써의 갈등론적인 구조도 내재해 있다고 본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과정을 사회학적인 관점

에서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의 이념이나 시대적 상황이 학교교육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수용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미술교육은 때로는 도구주의적 역할을 수행하며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우리 사회에서는 미술을 정의적 영역의 교과로 인식하며 지식중심 교과에 밀려나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의 목표를 대학입시에 두는 입시경쟁의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교육적인 목적과 의미보다는 내신 반영에 관심을 두는 현실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여 학교교육과정이 교과 이기주의에 의한 정책으로 입안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정 개혁에서 미술교과의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결국 미술교과의 위상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단지 지식중심 교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시대의 환경에서는 차별화된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창의적 인재육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과는 미술교과이다. 미술은 창의적인 상상력과 질성적·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감성적·정서적 영역에서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역에도 관여되는 교과라는 점이다. 나아가 학교 미술교육은 미술에 관한 지식 그 이상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 문화 흐름과 개인적 역량은 미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요구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미술교육 과정이 사회학적인 담론에 근거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현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의 하나는 영상문화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대중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는 크게 관련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의 지배적인 문화로써 교육적인 담론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은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교육정책은 국가의 이념이나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미술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미술교육에 대한 재인식과 패러다임 전환의 타당성을 논하였다. 교육적 패러다임은 시대에 대한 철저한 상황분석을 토대로 하여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사회적 가치와 유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미술교육 또한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가치와 효용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미술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 19) 한국조형교육학회 공저. (2014). 꼭 읽어야 할 한국미술교육 40선. p.44
- 20) 서인숙. (2008).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술교육. p.37
- 21) 서인숙. (2008). 위의 글 p.37
- 22) 서인숙. (2008).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술교육. p.37
- 23) 정옥희. (2010).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제도화된 학교 미술교육 담론 분석. p.85
- 24) 정옥희. (2010).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제도화된 학교 미술교육 담론 분석. p.86
- 25) 정옥희. 위의 책 p.39.
- 26) 이성도(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p.100.

- 
- 1) 서인숙. (2008)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술교육, p. 34
  - 2) 박휘락. (1998). 한국미술교육사. 예경, p. 17
  - 3) 오옥환. (2003). 교육사회학의 의미와 범위. p. 167.
  - 4) 허은주 외 4인. (2018). 현대 교육사회학. 양서원, pp. 39-40
  - 5) 허은주 외 4인. 위의 책 p.60
  - 6) 허은주. 위의 책, p.61
  - 7) 허은주. 위의 책, p.71
  - 8) 서인숙. (2008).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술교육. p.28
  - 9) 서인숙. (2008).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술교육. p.28
  - 10) H. Barnett. F. Graeme Chalmers. A Study of Art in the Cultural Context. 양건열 역.(1993). 예술 사회학의 이론과 전개, p.25
  - 11) H. Barnett. F. Graeme Chalmers.위의 책, p.26
  - 12) Eisner, E. W.(1995). Educating Artistic Visdion.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2003).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p.33
  - 13) Eisner. 위의 책 p.23
  - 14) Eisner. 위의 책 p.14
  - 15) Langer. (1957). Problem of art: Ten philosophical Lectures. Charles Scribner's sons. p.13
  - 16) 이안근. (2019). 유아미술의 인지적 활동에 관한 연구: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p.80
  - 17) 본 연구자의 논문으로, 그에 대해 논의 함. 이안근. (2018). 유아미술교육의 탐구적 접근에 관한 연구: 존 듀이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p.248.
  - 18) Eisner, E. W.(1995). Educating Artistic Visdion.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2003).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p.45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5). 미술과 교육개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별책 13>
- 김성숙 외 13인. (2007).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한국미술교육학회, 서울: 학지사
- 김연희. (2012). 존 듀이의 교육미학 -예술교육의 철학과 이론-경기: 교육과학사
- 김창식. (2000). 한국미술교육의 변화: 1945-1960.  
미술과 교육 제2, pp.21-40.
- 박휘락. (1998). 한국미술교육사. 서울: 예경
- 서인숙. (2008).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술교육.  
미술교육논총 제22-2, pp.23-54.
- 오옥환. (2003). 교육사회학의 의미와 범위.  
교육사회학연구, 제13-1, pp.161-189.
- 이성도.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미술교육논총, 24-2, pp.93-130.
- 이안근. (2019). 유아미술의 인지적 활동에 관한 연구: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66호, pp.77-87
- 이안근. (2018). 유아 미술교육의 탐구적 접근에 관한 연구: 존 듀이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62호, pp.247-257
- 이은적. (2004). Pierre Bourdieu의 사회학적 연구로 본 한국 미술 문화 교육의 의의. 프랑스학연구 제28, pp.387-408.
- 이은적. (2004). 신교육사회학의 학교문화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미술교육논총, 제18-1, pp.1-30.
- 정옥희. (2007). 미술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본 한국의 학교 미술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21-3, pp.89-122.
- 정옥희. (2010). 학교 미술교육의 사회문화적 담론 분석. Art Education Review, No.36, pp.323-352.
- 정옥희. (2010).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제도화된 학교 미술교육 담론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조형교육학회 공저. (2014). 꼭 읽어야 할 한국미술교육 40선. 경기: 미진사
- 허은주 외 4인. (2018). 현대 교육사회학. 경기: 양서원
- J. H. Barnett. 양건열 역. (1993). 예술사회학의 이론과 전개, 서울: 미진사
- Efland, D. A. (1996). A history of Art Education. 박정애 역. (2000). 미술교육의 역사, 서울: 예경
- Eisner, E. W. (1995). *Educating Artistic Visdion*.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2003).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 예경
- Eisner, E. W.(2002). *The Art and Creation of Mind*. 강현석 외 6인 역.(2007). 예술교육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Herbert Read. (1958). *Education through Art*. 황향숙 외 4인 역. (2007). 예술을 통한 교육. 서울: 학지사
- John Dewey.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이흥우 번역·주석. (2007). 민주주의와 교육. 경기: 교육과학사
- Lowenfeld, V. & Britain, W. (1964). *Creative and Mental Growth*,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1998).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 Vladimir Friche. 김휴 역. (1986). 예술사회학. 서울: 온누리신서

